

# 5·18 흔적 담긴 아파트서 광주를 기억하다

### 19~24일 亞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광천 시민아파트는 많은 이야기가 품고 있는 공간이다. 1969년 지어진 이곳은 화동 시민아파트와 함께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긴 세월을 버텨온 아파트는 그 시간만큼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시민들의 애환이 배어 있는 이 아파트는 특히 5·18과 들불야학의 기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동지를 틀었던 김영철 선생은 윤상원·박관현 등과 시민아파트를 중심으로 들불야학에서 벗들을 가르쳤다.

광천시민아파트에서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 오래전 아파트에서 살았던

김미영, 김종필, 이가원, 이현기, 양태훈, 최성욱씨 등 7명의 지역예술인들은 여러 차례 시민아파트를 찾아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리서치하며 작품의 일개를 짰다.

연극인 이당금씨는 아파트가 세워진 첫해부터 살았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극으로 만들었다. 5월 항쟁 당시 부상당한 아들 등 5남매를 키워낸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파트 바로 그 현장에서 펼쳐진다. 여기에 번사극 '이수일과 심순애'가 어우러지고 아파트 옥상에서는 연주회가 열린다. 주민들 삶의 모습은 영상과 다큐, 설치 작품으로 아파트 곳곳에 전시된다.



1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도시횡단프로젝트' 중 하나인 '광주시민 아파트 가.나.다' 참가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

## 광천 最古 광천시민아파트·전일빌딩 공연장소 변신 지역 예술인 협업 눈길...관객들 장소 이동하며 관람

이들의 이야기, 현재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만들어지고, 관객들은 참여 예술인들과 함께 아파트 공간들을 이동하며 주민들과 함께 그 삶속으로 들어간다.

이번 공연 '시민아파트로 가.나.다' (공연 23일 오후 2시30분, 전시 22일~24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진행하는 아시아 예술극장 창작 레지던시 '도시 횡단 프로젝트'(19일~24일 전일빌딩 등 광주시 일원) 중 하나로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특히 지역 예술인들과의 본격적인 첫번째 협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몇 년동안 추진단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지역 예술인들이 작업 초기부터 결합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특히 예술극장 사업에서의 소통은 거의 없었다.

도시 횡단 프로젝트의 임인자 예술감독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당금,

이번 프로젝트에서 활용되는 또다른 공간은 금남로 1가 1번지 '전일빌딩'이다. 예술가 그룹 '유랑축제'가 초청한 시민들은 시간 여행자가 돼 건물 내부를 탐방하고 각각의 방에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예술가들은 5·18 당시 '광주시민의 방' 역할을 했던 전일빌딩이 조만간 사라져버린다는 점에 착안, '침묵의 시간들'이라는 작품을 통해 '광주'를 이야기한다.

언급된 두 작품 모두 광주에서는 다소 생소한 '장소 특정적 공연'이다. 장소 특정적 공연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성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 공연자를 따라서 관객이 함께 움직이며 관람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또 광주평화연극제 연계 프로그램인 '길 위에서 5월을 보다-거리극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극단 '까치놀이'의 '가면 제작을 위한 오늘의 얼굴 연구', 놀이패 신영

의 '포스트 마당극의 전망과 과제'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광주의 상징적 공간들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전 시하는 '지도만들기 워크숍-33년, 동행', 청소년 거리극·움직임 워크숍 '도시 광각-길 위의 목소리', 증언맵 '말로 다 할 수 없는' 등 시민 참여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모든 공연과 전시는 무료이며 홈페이지(www.asiaculturecity.com)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임인자 예술감독은 "광주를 기억하고, 광주를 이야기하는 데 '공간'을 매개로 삼았다"며 "이번 작업이 지역 예술인들과 아시아 예술극장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빛고을 문학관 건립부지 원점 재검토

### 광주시, 건립추진 구성 부지 공모하기로 사업차질 불가피...참여위원 구성 논란

애초 광주시 동구 운림동 성촌마을 일대로 정해졌던 빛고을 문학관 건립 후보지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성촌마을 주민들의 사업 확장 요구에 따른 사업비 부담 증가 등 논란으로 사업이 3년째 표류하자 광주시 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빛고을 문학관건립위원회(이하 문학관 건립위원회)는 13일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위원회를 열고 황하택(빛고을 광주문화관 건립 추진위원장)씨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광주시는 빛고을 문학관 건립현안을 각계 의견을 모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꾸렸다.

문학관 건립위원회는 이날 문학관 건립부지를 광주시 동구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공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 동구지역에 특정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등이 부동산을 건립부지로 추천하면 심사를 거쳐 문학관 건립부지

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운림동 성촌마을 일대로 공모 가능한 부지에는 포함된다.

시가 문학관 건립위원회를 꾸린 것은 그동안 빛고을 문학관 건립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데 따른 대안이다. 시는 지난 2009년 문학관 건립사업에 착수했으나, 사업표류로 올해 건립예산 20억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됐다.

빛고을문학관은 기획전시실·창작실·체험관·디지털영상 문화관실 등을 갖춘 시설. 여기에 국비 32억 원과 시비 91억원 등 총 1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모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면 빛고을 문학관 건립부지가 언제 확정될지 기약하기 어려워 사업이 장기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 문화계의 한 인사는 "공모방식으로 건립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은 수동적으로 부지를 추천받기 때문에

적정 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빛고을문학관 건립위원회에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건립위원회에 참여한 11명의 위원 중 문화계 인사는 황하택씨와 노창수 광주문인협회 회장, 김종광주문화원 연합회 회장이 전부다.

조진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은 "한국문학의 중심에 이 지역 작가회의 회원들(송기숙, 한승원, 문순태, 김준태 등)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위원회 명단에 없다"며 "문학관의 경우는 광주와 지역의 상징성을 동시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폭넓은 단단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학관 건립이 특정한 문학인 중심이 되어서도, 행정편의의 주의로 가셔도 안 된다"며 "14일 강운태 시장과의 면담에서 문학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성천 기자 penfoot@kwangju.co.kr



종합예술공원으로 조성될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일대. <광주일보 자료사진>

# 비엔날레 주차장에 창작스튜디오 만든다

### 중외공원, 종합예술공원으로 조성

### 동구 운림동 한옥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아시아 아트컬처 파크)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맞춰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중외공원 종합예술공원 조성사업과 아시아 아트컬처 파크(창작예술촌) 조성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광주시는 13일 중외종합예술공원과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기본 계획 최종보고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이들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외종합예술공원 사업은 비엔날레 전시관, 시민민속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 기존 문화시설과 어린이 대공원을 연결한 종합예술공원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비엔날레 전시관 주차장 일대에는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인 공방촌과

창작스튜디오가 조성된다. 전시장과 공원에는 세계 각국의 문화 소개관, 음악·공연·영화관 등이 자리잡은 30개의 전시관이 들어선다.

아시아 아트컬처 파크 사업으로는 성촌마을 일원 7만1000㎡ 부지에 작가들이 거주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창작공방, 관객들을 위한 체험공방,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예술장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 고유의 전통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통테마공원, 야외미술관 등도 들어선다. /윤영기기자 penfoot@

# 루드비히 이임 연주회 앓고 떠난다

### 건강이유 출연 취소 22일 부지회자 연주

계약을 포기한 크리스티안 루드비히 광주시향 상임지휘자가 이임 연주회 없이 광주시향을 떠난다.

루드비히는 당초 오는 22일로 예정

된 연주회에서 마지막 지휘봉을 잡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출연을 취소했다.

루드비히는 무스르그스키 곡 등으로 마지막 연주회의 프로그램을 정하고 협연자로 피아니스트 임효선씨를 선정, 계약을 진행하는 등 연주회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설 연휴 기간에

진단서가 첨부된 메일을 보내 공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루드비히는 계약상의 공연 횟수는 모두 채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루드비히에게 수차례 의견을 물었을 때 마지막 공연은 진행하겠다고 했고, 그에 따라 단원들과 마지막 이임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연을 취소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정기연주회 지휘봉은 김영연 부지회자가 잡는다. 이날 공연은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으로 문을 열어 협연자로는 피아니스트 임효선씨가 나서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들려준다. 피날레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이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